

## 비즈 패트론 | 여전히 멀고 험난한 한국GM 정상화

## 산은 회장 “한국GM에 4200억원 출자 안할수도”

“국가적으로 반대한다면” 전제조건  
경제적 도움된다면 법인분리 찬성

이동걸(사진)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7억5000만달러(8400억원) 중 집행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출자하지 않을 수 있다”고 22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강행으로 ‘산은 패싱’ 논란이 일자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2대주

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이 향후 10년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7억5000만달러를 출자하는 정상화 방안을 GM과 합의했고, 6월에 절반을 집행했다. 나머지 3억7500만달러(4200억원)는 12월31일까지 출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국감 현장에서 “GM에 투입하기로 한 시설자금 중 남은 금액을 연말에 집행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추가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적으로 반대한다면 (집행을) 안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억7500만달러를 집행하지 않으면 GM과 맺은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그 이후에 GM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 3억7500만달러를 실행하고 기본계약을 완결하게 만들어야 GM이 10년 동안 생산계획을 유지하고 설비투자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GM 본사의 한국 ‘먹튀설’을 두고 “먹튀라는 근거 없는 논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적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GM 본사가 의도

적으로 4조원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먹튀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대해서도 ‘한국GM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인분리가 철수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철수라고 단정하는데 동의를 못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GM은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생산 법인과 R&D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GM 노조는 GM 본사가 한국GM의 생산 부문을 사실상 철수하려는 ‘먹튀’의 사전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2일

|                     |           |   |         |
|---------------------|-----------|---|---------|
| 코스피지수               | 2161.71   | ▲ | +5.45   |
| 코스닥지수               | 744.15    | ▲ | +3.67   |
| 日 닛케이 지수            | 2만2614.82 | ▲ | +82.74  |
| 中 상하이 종합            | 2654.88   | ▲ | +104.41 |
| 국고채 금리<br>(3년물, 연%) | 2.01      | ▲ | +0.02   |
| 환율 (원·달러)           | 1130.30   | ▼ | -2.20   |
| 국내금값<br>(원/그램 g)    | 4만4523.15 | ▼ | -149.79 |

해외 확장나선 韓 모바일게임  
‘탈리온’ 등 일본·중화권 공략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낸 한국 모바일게임들이 서비스 지역 확장에 나섰다.

게임빌은 태국 게임 매출 상위권에 오르는 등 동남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모바일게임 ‘탈리온’을 18일 일본에 출시했다.

출시 초부터 인기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탈리온’은 일본 앱스토어 매출 7위, 구글플레이 15위까지 상승하며 흥행 청신호를 켜다. ‘탈리온’은 유틸플러스와 손잡고 선보인 블록버스터급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대규모 진영 간 전투(RvR)와 수준높은 그래픽, 360도 시점 조절이 자유로운 풀3D 뷰 등이 특징이다. 게임빌은 동남아와 일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도 게임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네오위즈는 겐프스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브라운더스트’의 대만, 홍콩, 마카오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단체 방식의 전략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전략 전투와 개성 있는 캐릭터, 풍부한 콘텐츠가 특징이다. 이 게임은 앞서 일본과 동남아에도 출시돼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5조 시장 잡아라”…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사업 본격화

전담팀 구성 복미 공장 시범적용  
산업·의료 웨어러블 로봇 개발

현대차그룹이 산업용 웨어러블(착용)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인 로보틱스(Robotics) 신사업 분야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9월 현대·기아차 복미 공장에 ‘의자형 착용로봇’(H-CEX)을 시범 적용한 데 이어, 연말에는 ‘윗보기 작업용 착용로봇’(H-VEX)을 시범 적용해 독자개발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력 검증에 이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웨어러블 로봇 분야 10년간 50배 성장 전망

현대차는 올해 초 로봇·인공지능(AI) 분야를 5대 미래핵심 성장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략기술본부 산하에 로보틱스(Robotics)팀을 신설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가 개발한 의자형 착용로봇(H-CEX)과 ‘윗보기 작업용 착용로봇’(H-VEX)도 로보틱스팀(전략기술본부)과 생기개발센터(생기개발본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로보틱스 분야는 산업, 군사, 생활 지원,



현대차그룹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며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인 로보틱스 신사업 분야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의자형 착용로봇(H-CEX)’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모습. 사진제공 | 현대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 현대차그룹의 사업 영역을 키워줄 미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세계 로보틱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BIS에 따르면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2016년 9600만 달러(약 1077억 원)에서 2026년 46억5000만 달러(약 5조2150억 원)로 10년간 50배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현대차 그룹은 산업용 로봇 외에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로봇을 개발 중

이다. 관련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서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문 스타트업 ‘퍼셉티브 오토마타’에 전략 투자를 단행했고, 비전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중국 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딥글린트’와도 협업 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통해 쌓은 방대한 양의 기술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 한국타이어, 폭스바겐에 신차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가 폭스바겐 ‘티구안 R-라인’에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2’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 ‘티구안 R-라인’은 티보차저 엔진과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젊고 경쾌한 감각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한국타이어는 티구안 R-라인의 스포티한 감성에 걸맞는 역동적인 주행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투스 S1 노블2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했다. 벤투스 S1 노블2는 안정성과 내구성, 높은 접지력과 정교한 핸들링 등 고속주행에서 최상의 성능을 구현하는 모델이다. 또한 사계절용 초고성능 타이어로 비대칭 패턴을 적용해 뛰어난 배수 능력을 제공하여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성열 기자

## 이베이 ‘빅스마일데이’ 사전 이벤트

G마켓과 옥션은 연중 최대 규모의 브랜드 행사 ‘빅스마일데이’를 11월1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G마켓과 옥션의 별개 세일전이 아닌 이베이코리아의 전사적 대규모 프로모션이다. 이베이코리아는 22일 티저 페이지를 열고, 31일까지 사전 이벤트를 벌인다. 10월 한 달 간 G마켓과 옥션에서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쇼핑지원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미리 증정한다. 김명근 기자



## 교육·퍼즐

## 에듀윌

하반기 면접 대비 TIP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대기업 면접 전략?…‘시사상식’ 대비는 필수!

지난 21일 삼성그룹 채용 필기시험인 GSAT(삼성직무적성검사)가 일제히 치러졌다. 총 20곳의 삼성 계열사에 취업하기 위해 약 10만 명의 취준생이 GSAT를 치를 것으로 예상됐던 가운데 GSAT의 난이도는 상반기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외에도 LG·CJ·SK 등 주요 대기업의 인적성검사는 모두 종료된 상태다. 필기시험까지 통과했다면 남은 관문은 바로 ‘면접’이다.

면접 전형은 기업마다 상이하게 진행되지만 각 기업 필기시험이나 면접에서 시사상식 등의 최신 이슈를 질문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취준생들에게 상식을 따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가 됐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지원한 취준생이라면 비슷한 스펙과 이력을 갖춘 이들이 많을 터. 이 중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사상식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상식 공부는 일반상식부터 최신 이슈와 취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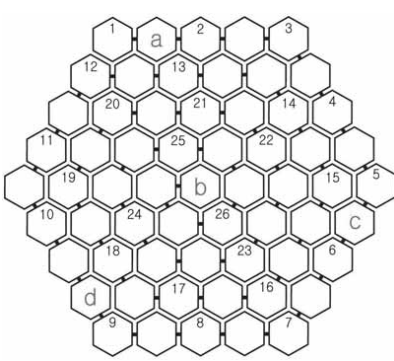
관련 이슈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한다. 단기간에 전반적인 시사상식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최신 이슈를 모아 놓은 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에듀윌은 매달 핫한 최신 이슈를 모은 ‘시사상식’을 발간 중이다. 10월호에는 ‘부동산 투기 광풍’, ‘병역특례 행정성 논란’ 등의 HOT 이슈와 정치·경제·국제·문화 등 분야별 최신 상식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합격 전략을 담은 생생한 취업 정보와 논술 및 전반 대비 콘텐츠 등 취업 전형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아 취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준다. 에듀윌 도서를 홈페이지를 통한 정기 구독도 가능하다.

이수진 기자 sujin122@donga.com

## ■ 낱말문제



01.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 02.큰 배가 밀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로 열리는 구조로 만든 다리. 03.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쓰는 책. ‘ㅇ과ㅇ’ 04.쓸쓸하고 외로워 슬프게. ‘ㅇ글ㅇ’ 05.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06.사람이 살거나 개간한 일이 없는 땅. 07.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08.남보다 먼저 사물이나 세상일을 깨달은 사람. 09.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ㅇ초ㅇ종’ 10.여러 의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의견을 따름. 11.시험을 치르는 학생. 12.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 13.상대편과 타협하고, 온건하게 사태에 대처하려는 입장에 선 사람들. 14.행세하는 집 자손으로 난봉이 나서 결판난 사람. 15.집집마다 다니며 가족의 실태를 조사함. 16.품귀(品貴)나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당장 필요한 수량 이상으로 사 두는 일. 17.맞춤이 아닌,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구두. 18.화학 섬유로 만든 실. ‘ㅇ섬ㅇ’ 19.네모 반듯한 정자. 20.조용한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 21.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친목을 꾀하기 위하여

맺는 게. 22.큰 단체의 끝씨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뜻. ‘ㅇ구ㅇ후’ 23.술자리에서, 뒤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권하는 석잔의 술. 24.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태도. 25.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26.들보 위의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 ■ 낱말정답

단어

이야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b.

c.d를 이어놓

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식

물 이름이 됩

니다.

